#MYJEEPSTORY

당신의 JEEP STORY를 들려주세요

#MYJEEPSTORY

SHARE YOUR STORY

CULTURE OF PASSION

Jeep는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마니아들과 함께하는 브랜드입니다. Jeep 오너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며, 어떤 길이든 망설임 없이 나섭니다. 그들에게 Jeep는 드림 카였으며,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가장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최고의 오프로드 카, 운전자의 DNA를 일깨우는 드라이빙 감각… 194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Jeep가 한결 같은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Jeep와 함께하는 모험을 즐겼던 오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부터 대학교수, 포토그래퍼,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직접 만난 오너들의 면면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Jeep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오롯이 반영하는 차라는 것입니다. Jeep의 어떤 면이 오너들을 이렇게 매료시킨 것일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BENJAMIN PLOUFFE

애니메이션 아트 디렉터
WRANGLER

보시다시피 저희에겐 밀리, 헤일즈라는 이름의 소중한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데, 이 아이들 역시 저희만큼이나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함께 여행할 때 호텔이나 펜션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잠자리가 고민이었어요.
WRANGLER로 차를 바꾸면서 우리의 여행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특별한 목적지 없이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다 함께 차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밀리와 헤이즐은 앞자리에, 저와 아내는 뒷자리에 에어매트를 깔고 자는 식이죠. 눈을 뜨면 바로 자연이 보이는 광경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그 감동을 놓치고 싶지 않아 취미인 사진도 더 열심히 찍고 있어요. 전과 다르게 이제는 굳이 돌아올 걱정 없이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새로운 광경을 마주할 때 느끼는 영감이 애니메이션 아트 디렉터라는 저의 일에 많은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첫 오토캠핑의 추억도 Jeep와 함께였어요. 전남 화순으로 떠났었는데, 낯선 곳에서 마주한 이튿날 아침의 황홀한 풍경을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산에 가보고 싶어요. 원래도 산을 무척 좋아하는데 가족, 그리고 WRANGLER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진수

반스코리아 마케팅 매니저
COMPASS

워낙 스포츠를 좋아해 여름엔 서핑, 겨울엔 스노보드를 즐기는데 COMPASS는 이 모든 상황을 함께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 뒷좌석에 친구들을 가득 태우고 다닐 수도, 부피가 큰 장비도 거뜬히 실을 수 있으니까요.
3년 전 이 차를 구입하고, 지금은 아내가 된 여자친구와 강원도 일대를 쭉 여행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COMPASS와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허재석

하이네켄코리아
마케팅 차장

WRANGLER

스포츠와 서핑을 즐기는 제가 WRANGLER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당연한 운명 같았죠.
WRANGLER를 구입한 후, 제 취미생활의 폭이 더 넓어졌고, 더 활발해졌어요. 오프로드 성능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적재능력이 뛰어나 각종 캠핑도구와 서핑 장비, 테니스 라켓, 야구 장비 등을 잔뜩 싣고 다닐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차가 없었다면 제 취미생활 중 절반은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눈에 띄는 컬러 덕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는데, 해운대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쩐 일이냐?' 했더니 뒤를 돌아보래요. 바로 뒷 차에서 친구가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제 눈에 WRANGLER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차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두현

포토그래퍼
CHEROKEE

대중적인 것과 유행, 일관성이 있는 것들에 거부감이 있는 편이에요. 여기에는 사진을 찍는 저의 직업적 특성이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남들과 비슷한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스스로의 스타일과 독창성을 가지는게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저의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차가 바로 CHEROKEE였어요. 특별한 것을 좋아하지만 너무 튀는 건 또 싫어하거든요. 어디서든 남의 이목을 끄는 것보다 은근히 묻혀 있으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을 좋아해요. CHEROKEE가 바로 그런 차였죠.
종종 CHEROKEE를 타고 다니며 도시의 면면을 살펴요. 도심의 야경, 특히 석양을 좋아하는데 CHEROKEE는 어디에도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려 애정이 더 깊어졌어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이유죠.

신재우

COINSIDE 차장
WRANGLER

어떤 대상이든 늘 선택의 기준은 클래식이었죠. 클래식은 영원하니까요. 차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함께 하지만 쉽게 질리지 않는 차를 원했고,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꿈꿔왔기 때문에 오프로드도 가능한 차이길 바랐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Jeep의 아이덴티티와 디자인적인 클래식함을 동시에 품고 있는 WRANGLER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탈 것'을 즐기는 편이라 자전거도 좋아해요. 보시다시피 갖고 있는 자전거도 모두 클래식 모델이에요.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아직까지 전혀 손색이 없어요. 클래식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클래식 모델을 모티브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거죠. 내가 타고 있는 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최영호

뉴웰러버메이드 대표
WRANGLER

저에게 Jeep는 아들과 공유하고 싶은 차예요.
가끔 고등학생인 아들이 자신의 첫 데이트 때 이 차를 끌고
나가는 상상도 해보는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아들과 함께 WRANGLER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여행하는 것이죠.
WRANGLER와 함께 '감히' 이런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Jeep의 매력 아닐까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차잖아요.

민성필

자동차 전문 포토그래퍼
WRANGLER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찍기 시작한 지 13년이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자동차를 찍고 경험하면서 WRANGLER SAHARA가 저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차라고 판단했죠.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Jeep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과 75년을 이어온 역사성이 좋고 둘째, 촬영에 용이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WRANGLER는 톱과 트렁크 부분의 개폐성이 뛰어나잖아요.

요즘은 차 꾸미는 재미에도 푹 빠져 있어요. 촬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는데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면서 제 차만의 디자인과 개성이 생겨 매우 즐겁습니다. 왜 SAHARA를 선택했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건 도심형에 걸맞은 심플하면서도 럭셔리한 디자인 때문이에요. 웬만한 오프로드는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데다 도심 드라이빙에서도 가치를 발하거든요.

정태진

TACTORY CEO
RENEGADE

저는 모험가 기질을 타고난 편인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길 원하죠.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지에서의 캠핑을
즐기는 이유도 이런 성향 덕분인 것 같아요.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만큼이나 거친 비포장도로를 자주 달리는 저에게 RENEGADE만큼 적절한 차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늘 RENEGADE에 1인용 캠핑용품을 실어두고 금요일 밤에 훌쩍 떠났다가 토요일에 돌아오는 것이 제겐 가장 달콤한 휴식이에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 뷰 파인더를 통해 자연을, RENEGADE를
바라보면 제가 미처 몰랐던 모습과 감성을 새삼 깨닫는
기분이에요. 개인 SNS에 종종 사진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니 더욱 사진 찍는 일이 즐겁습니다.

하준수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장,
디자인 대학원장

WRANGLER

지금은 영상디자인을 교육하고 있지만 사실 디자인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DNA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저에게 있어 Jeep은 바로 WRANGLER였어요. 다른 모델은 생각 해본 적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난 Jeep이 아닌 WRANGLER를 탄다고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첫째가 이제 곧 만으로 36개월인데 자동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브랜드를 맞출 정도예요. WRANGLER도 첫째가 저보다 더 좋아해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봐 준 차라서 그런지 첫째와 함께 WRANGLER를 타는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조건과 계산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이 WRANGLER의 본질이자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에서 그런 구멍 난 듯한 단순함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프로드를 달려서가 아니라, 강렬한 색깔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남 생각하지 않고 편리함과 같은 보편적 미덕에서 잠시 벗어났다는 점에서 WRANGLER를 타고 있는 순간만큼은 정신적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동영

프로스앤찬스 공동대표
WRANGLER

Jeep는 제 드림 카였어요. **차란 자신을 대변하는 상징과 같은데 외향적인 성격에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저에게 역동적인 Jeep만큼 잘 어울리는 차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첫 차는 꼭 WRANGLER로 하리라 마음 먹고 다른 차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꿋꿋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2014년, 마침내 **WRANGLER POLAR EDITION**을 갖게 됐고 동시에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 14개월인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 이 차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늘 부지런히 관리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조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RENEGADE

문득 SUV가 타고 싶어 여러 모델들을 알아보다 RENEGADE로 선택했어요. 겉모습만 SUV가 아닌, SUV DNA를 온전히 가진 차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서울의 골목은 건축가로서,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꼭 보존하고 싶은 장소예요. 골목마다 스며있는 역사와 이야깃거리를 간직하고 싶어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이란 책을 내기도 했죠. 특히 서촌은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들릴 만큼 좋아하는 곳입니다.

김동기

38프로덕션 대표
WRANGLER

2014년 겨울 영상 촬영 작업을 하며 2주 동안 WRANGLER 를 타게 되었어요.
하루는 태기산에서 촬영을 진행하는데 눈이 많이 쌓이고 길이 얼어 있더라고요.
다른 차들은 옴짝달싹 못 하고 심지어 SUV조차 운행을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
WRANGLER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길을 올라가더군요. 그 순간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이 차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했죠.
전 이번 겨울 WRANGLER와 함께 즐길 드라이빙이 너무 기대돼요.
남들은 마주치기 싫은 순간이겠지만 WRANGLER와 함께 험난한 길을
함께 올라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WRANGLER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차이기도 해요. 아웃도어와
익스트림 영상을 찍는 직업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를
표현해줄 수 있는 차는 WRANGLER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차를 구입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제 선택은 무조건 WRANGLER 입니다.

양경수

웹툰 작가
RENEGADE

미술을 하는 저에게 디자인과 비주얼은 사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한번 구매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자동차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RENEGADE는 디자인과 비주얼 모두 단번에 저를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OMAHA ORANGE 컬러는 다른 차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색이라 더 좋았어요.** 평소 차를 구입하게 되면 도로 위에 흔히 보이는 무채색보다 저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색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동차를 많이 경험해보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RENEGADE를 직접 주행해보니 묵직하면서 안정감이 있는 게 운전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더라고요. 귀여운 외관에 Jeep다운 드라이빙 감각까지, 반전의 매력이 있는 거죠.** RENEGADE의 달리는 맛을 알게 된 이후로는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일부러 지방을 다니며 시원하게 달리곤 해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서 예전보다 장을 보러 자주 다니는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중하게 고른 차인 만큼 RENEGADE와 오랫동안 지금처럼 어디든 함께 다니면서 일상을 즐기고 싶어요.

이원희

세무법인 대표
WRANGLER

낚시를 시작한 지 17년 됐는데 WRANGLER를 본 순간 '낚시 여행을 다니기에 이만한 차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낚시꾼들 사이에 소문난 강이나 낚시터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그만큼 비탈길이나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할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도로에서도 거뜬히 달려줄 튼튼한 차가 필요했고, 넉넉한 트렁크 공간도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처럼 낚시 포인트가 강 건너에 있을 때는 짐받이에 낚시용 보트까지 얹고 다니는데 WRANGLER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겠어요?

평일에는 낚시를 다니거나 출사를 떠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이라, 주말에는 가족에게 더욱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WRANGLER에 캠핑 장비를 싣고 근교로 나가 두 아들과 뛰어 놀다 보면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아요.

허우정

티엔티코리아
대표이사 비서

RENEGADE

제가 RENEGADE를 선택한 이유는 오래 전 큰 사고를 당한 경험 때문이에요. 사고 이후로 차를 바꾸게 된다면 튼튼한 SUV로 사야겠다 결심했거든요.
RENEGADE는 튼튼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예쁘고, 더군다나 이 Anvil 컬러는 색상까지 독특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흔하지 않아 왠지 저만의 컬러 같은 묘한 뿌듯함이 있다고나 할까요? 라이프스타일도 바뀌었어요. 바쁜 일상 덕분에 휴식과 힐링이란 단어를 잊고 살았는데 요즘엔 점심시간을 이용해 RENEGADE를 타고 회사 근처 공원에 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해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음악을 듣거나 여러 생각에 잠기곤 하죠. 예전엔 요가나 뜨개질 같은 정적인 취미를 즐겼었는데 이젠 좀 더 액티브한 취미생활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스케이트 보드를 구매하고, 매일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연습하고 있어요. 아직 능숙하진 않지만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하는 자체만으로도 즐거워요.

지민호

NEXT CG 대표
RENEGADE

아내의 버킷 리스트 중 두 가지가 'Jeep를 운전하는 것'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였는데 RENEGADE는 일 년 전 구매하며 바람을 이뤘고, 제주도 생활은 이때 해보자 싶었죠.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면서 RENEGADE와 동행하는 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두 가지 버킷 리스트를 한번에 이룰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막상 제주도에 와보니 이곳이야말로 Jeep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평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캠핑도 자주 다녔지만 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어요. 하루에 한두 곳씩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 즐기다 오는데 여유가 주는 행복이 이렇게 컸나 싶어요.

Jeep®

www.jeep.co.kr